

‘정쟁의 시대’ 국회 문 닫고 장외 설전

김경수 구하기 vs 황교안 탄핵 부당 발언 난타전 민생 현안 산적에도 출구 없는 정국 교착 심화

정치권에 다양한 정쟁이 증점되면서 여야 간에 사안별로 다양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우선, 여야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또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한국당의 극단적 우경화를 꼬집는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이 경쟁 이처럼 민주당, 한국당, 야 3당이 정쟁

를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제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김경수 구하기’ 비판에 방어막을 치는 한편 한국당이 2·27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의 가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정면으

로 도전하더니 이제는 황교안 등 당권 주자들이 앞다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 대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아야 할 야당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온통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 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교안 후보의 ‘박근혜 탄핵’ 관련 발언은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지지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인식의 수준이 개탄스럽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각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판결”과 “황교안의 탄핵 부당성 발언”을 놓고 얽힌 여야 공방이 복잡하게 이어지면서 정국 교착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파행 국면을 해결할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로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과거 퇴행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열린 TV조선 방송토론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정 여부는 주요 논쟁 포인트였다. 입장 이후 박 전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서 되도록 언급을 삼갔던 황 후보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다”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5·18 모독’ 공청회가 지민 논란의 불씨도 전대 기간 내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과 ‘5·18 모독’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전대 분위기를 우경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준고 후보의 도를 넘는 ‘막말 대잔치’도 공당의 전대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정치 혐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저만 게 무슨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나라를 팔아먹는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탄핵”과 같은 선동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박 논란의 경우 친박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화두

과거에 발목 잡힌 한국당 전대

5·18 모독 논란·박 탄핵 인정 여부 화두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가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 선관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로 공식 선거운동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최대 화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여부와 ‘육중 박심’(朴心·박 전 대통령의 중), 5·18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 문재인 탄핵 막말 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수감돼 정치 현장에서 퇴장한 상태이지만 한국당 정치지형에 끼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가 ‘육중정치’를 할 만큼 현실 정치권에 힘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국정농단과 탄핵의 책임 소재를 거론할 때마다 당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 간 계파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당 전당대회가 ‘박근혜’, ‘탄핵’, ‘계파갈등’, ‘5·18’ 등 과거 이슈에 묶이면서 당과 민생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5일 입당 후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후보에게 따라붙은 ‘탄핵총리’, ‘배박’(背朴·박근혜를 배신했다) 논란의 꼬리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박 논란의 경우 친박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화두

로 떠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를 과거 퇴행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날 열린 TV조선 방송토론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정 여부는 주요 논쟁 포인트였다. 입장 이후 박 전 대통령과 탄핵에 대해서 되도록 언급을 삼갔던 황 후보가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없다”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5·18 모독’ 공청회가 지민 논란의 불씨도 전대 기간 내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해당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과 ‘5·18 모독’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전대 분위기를 우경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기에 청년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김준고 후보의 도를 넘는 ‘막말 대잔치’도 공당의 전대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물론 ‘정치 혐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저만 게 무슨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나라를 팔아먹는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문재인 탄핵”과 같은 선동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이번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박 논란의 경우 친박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지만, 화두



민주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중국 상하이로 방문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만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당,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민주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상하이 도착 직후 옛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킨 루쉰공원(옛 흥구공원)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둘러봤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독립운동가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후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한다. 이번 방문에는 정 대표와 함께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최고위원, 조배숙·박주현 의원 등이 동행한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설득력 없는 조건만 내세우지 말고 열린 자세로 국회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경사노위의 합의에 대해서는 ‘활영’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보이콧 중단 의사는 보이지 않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민간인 사찰, 민간기업 인사 개입과 국가 채무 조차, 손해원 의원의 부당산 투기와 인사 전횡 의혹, 김경수 지사 대선 여론 조작의 최종 배후 등을 밝히기 위해 민주주의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에 협조해 국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 “탄력근로제 입법 시급...국회 정상화해야”

법제화 고리 한국당 복귀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관련 입법을 위해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제화를 고리로 국회 보이콧 중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

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다. 이 입법을 위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것이다.

무소속 손해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국정조사 등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전제 조건을 차단하면서 민생입법을 위한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날 여야 간 협상에도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거론,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루빨리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떻게 이뤄낸 노사 합의의 정신이 결실을 못 보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민주, 5·18 왜곡 방지법 야당과 공동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고 권미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범·김순례 의

원의 ‘5·18 망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5·18 왜곡 처벌법 추진을 통해 한국당을 향한 연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올해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하기로 하고, 방식과 기부단체 선정 등은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정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형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실제로 추진할지 문제와 추진 시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서 다시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부터 시행된 “사전명의로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월드에서 강의실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의로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의로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기간,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062)511-0030 · 팩스: 062)512-8767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7기)	광주교육대학교(197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 1, 2단계 연속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화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속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 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 062) 950-3582-4 ·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 문 의 : 062) 520-4243 · 지도교수(선병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편한생활적합 대지 268㎡ 3300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면꽃수지 집 1192㎡ 조용한 생활적합 1억2700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은 1억1880만원
- 별장 니추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밀 4차선 집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양상시설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읍 원동·다세대부지 균형 일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전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강진군 드림팜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정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면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완도읍 정동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정 도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0피트·다세대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기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3억 7500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바다인접 2346㎡ 펜션 등 적합 5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